

# 「驅魔劍」의 構成方法에 대한 一考

曹 南 鉉\*

## 1.

新小說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략 몇가지 큰 줄기로 나누어 그 방향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白鐵교수는 新小說의 계몽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그 주제를 네가지로 類別하였다. 개화와 자주독립, 신교육사상의 선전, 新道德과 因習의 비판, 미신타파와 현실폭로<sup>1)</sup>가 그것이다. 한마디로 白鐵교수는 「開化期=進歩・改新에의 意志」라는 도식적인 역사주의의 방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全光鏞교수는 「李人植研究」(서울대 논문집 6집 1957년)와 「新小說 作品各論」(思想界 1956년도 연재)을 통하여 書誌的인 고찰과 아울러 각 작품에 대한 逐條的인 내용분석을 피한 바 있다. 全光鏞교수의 이와같은 업적에 의해서 白鐵교수의 도식적인 역사주의는 상당히 극복된 셈이다.

趙東一교수는 新小說에 古代小說의 要因(世界觀과 技法)이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新小說=開化思想이라는 목계를 깨뜨리고 과감하게 신소설을 바로 고대소설의 연장선상에 올려 놓았다.<sup>2)</sup>

李在銑교수는 종래의 연구수준에서 일보를 내디디어 다양한 이론적 典據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E. Lämmert의 *Bauformen des Erzählens*(1955)와 H. Seidler의 *Die Dichtung*(1965)을 이론적 立地로 삼은 「新小說의 敘述構造論」<sup>3)</sup>은 하나의 試論이면서도 많은 암시를 던져 주고 있다. 게다가 李在銑교수는 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 등에 나타난 소설가

\* 建國大 教授(博士課程, 國文學專攻)

1)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上), 白楊堂, 1947, cf pp. 46-71.

2)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韓國文化研究所, 1973.

3)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cf pp. 204-289.

지도 정리하여<sup>4)</sup> 신소설의 영토확장을 꾀하였다.

연전에 白淳在씨는 장서가로서의 면모를 살려 단편적이지만 신소설에 관해 몇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한 바 있다.<sup>5)</sup>

이외에도 여러 先學들의 연구가 있어 신소설연구의 경우 資料補完과 作品再照明이라는 두가지 작업이 착실하게 深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 신소설 연구에 있어서 소설작품이 지나치게 역사의 자료(개화기 시대정신의 반영)로 고착되어 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다른 시대의 소설과 거의 마찬가지로 신소설도 主題分析의 방법 그것도 공식적이며 상식적인 反映論(Wider spiegelungstheorie)에 근거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主題分析의 방법이 결코 능사가 될 수 없다는 비판과 자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터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자각은 겨우 李在銑교수에 와서야 그 구체적인 형태를 획득하게 된다. 앞에서 잠깐 비춘 바 있는 「新小説의 叙述構造論」이 그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李在銑교수가 시범을 보인 「形式分析」의 방법은 신소설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靑信號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다소는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또는 극복해야 할 몇가지 불충분한 점을 靈呈시킨 것도 사실이다. 西歐理論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섭렵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을 뿐더러 서구이론의 응용과정에 있어서 다소 裁斷的이며 도식적이었다는 인상도 끝내는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李在銑교수가 보여준 形式分析의 방법이 次後의 신소설연구에 있어서 많은 암시를 줄 수 있으리라는 추측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다.

本稿는 위에 지적한 形式分析의 방법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과연 신소설이 소설의 實質要件 중의 하나인 必然的 構成法을 얼마나 잘 체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本稿에서는 작품 「驅魔劍」에 나타난 偶然構成의 흔적을 더듬어 보기로 하였다.

4) 李在銑: 韓末의 新聞小説, 春秋文庫, 1975.

5) 참고: 韓國文學(1977. 2-4)

白淳在씨도 이 작업을 통해서 신소설의 영토확장의 필요성을 力說하고 있다.

## 2.

「驅魔劍」은 迷信打破를 주제로 한 李海朝의 대표작 중의 한 작품이다. 미신타파는 「李朝末期의 부패한 제도와 舊社會의 몰락과정」<sup>6)</sup>을 반증하는 당대의 시대정신으로 확대해석되기도 한다. 미신타파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세계관의 到來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신타파는 「偶然論의 世界觀」(occasional point of view of world)을 청산하여 보겠다든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해방이전에 李海朝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논한 이는 林和였다. 林和는 概說朝鮮新文學史(제2회)에서(史觀도 불분명하며 게다가 역사서술과 해설사이의 구별조차 못하고 있다.) 작품 「驅魔劍」을 「自由鍾」과 더불어 李海朝의 二大秀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自由鍾」과 「驅魔劍」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自由鍾이 放論家·啓蒙家로서의 李海朝의 面目을 傳하는 것이라면 이 小説은 예술가 작가로서의 李海朝를 이야기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大端히 강한 政論性과 啓蒙性을 가진 作家로서의 面目을 傳하는 作品<sup>7)</sup>

많은 신소설 작가 중에서도 李海朝는 李朝小説의 要因을 극복하지 못한 소설을 많이 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金台俊은 李海朝의 작품을 概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다.

氏의 作品은 아즉도 古代小説의 格式에서 距離가 過히 멀지 아니한 것이었다.<sup>8)</sup>

林和도 이 견해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작품 「驅魔劍」에 나타난 李朝小説의 要因을 자세히 검출하여 내고 있다.

「驅魔劍」은 根本的으로 「합진해」一家內의 事件으로 시작하여 끝난 點으로 보아 서도 家庭小説의이고 「합진해」, 그의 안해 崔氏, 두 前室, 그 亡靈들과 崔氏 所生

6) 白鐵：前掲書 p. 68.

7) 林和：概說 朝鮮新文學史(제2회), 人文評論 卷14권, p. 95.

8) 金台俊：朝鮮小説史, 學藝社, 1935, p. 248.

子와의 葛藤이란 形式을 通하여 온갖 迷信行爲가 버려지는 것을 보아도 이 小說의 主要目的인 迷信의 害毒을 이야기 하는데 作者가 專히 舊家庭小說의 形式에 依據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前後娶關係라는 것은 女子를 中心으로 한 家庭의 葛藤中 繼母子 關係와 더불어 實로 典型的인 關係이기 때문이다. 이 小說에 萬一 崔氏의 所生이 없고 죽은 李氏나 朴氏의 所生이 남아 崔氏를 섬기게 된다면 純然한 薔花紅蓮式 繼母型家庭小家이 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小說에 利用된 舊小說型은 家庭小說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四寸과의 關係에서 볼 수 있는 富兄即惡兄對貧弟即賢弟라는 「興夫傳」의 形式도 巧妙히 利用되어 있고 惡한 後室奸巧한 老婆, 그것과 連結된 外部의 惡한 賤人等の 配置는 이 小說의 起承轉結이 된 勸善懲惡主義와 더불어 모두 舊小說의 糟粕들이다.<sup>9)</sup>

전형적인 인물설정법, 전형적인 갈등관계의 설정 방법 등등은 李朝小說의 竝질을 극복하지 못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작품 「驅魔劍」은 舊家庭小說의 모티브 이외에 다른 모티브도 많이 담고 있기는 하다. 林和는 작품 「驅魔劍」이 李朝小說의 要因을 극복해 낸 증거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 小說에 와서 勸善懲惡은 分明히 勸善懲舊가 되고 善勝惡敗는 新勝舊亡의 성질을 뚜렷하게 되었다.<sup>10)</sup>

한마디로 작품 「驅魔劍」은 미신타파(勸新懲舊)라는 李海朝의 主제의식에 의해서 李朝小說의 要因으로부터 간신히 추출되고 있다. 「驅魔劍」의 경우 舊는 迷信을 新은 합리적·과학적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迷信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偶然論의 世界觀을 뜻하는 것이다. 확률이 낮은 것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우발적인 징후로 미루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을 필연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逆轉시켜 생각하는 것 모두가 迷信의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李海朝는 우연론적 세계관의 虛構性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금방울 일파의 행위가 필연성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즉 그들의 행

9) 林和：前掲書 pp. 97-98.

10) 上掲書 p. 100.

위가 요행히 또는 우연하게 주위사람들에게 인정되거나 또는 그들이 우연을 필연으로 가장해서 보여 주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제 이를 실제 작품에서 추려가며 논해 보기로 하자.

합진해의 三聚인 최씨는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무당·만신인지라 迷信에 잔뜩 침혹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조기 생각에는 사름의 일동일정으로 죽고 사는 일까지라도 귀신의 통력으로 만물부어 싹틈업시 꼭맞고 정신을 못차려 그리는 것이리라. 장스나자 룡마가 난다고 합진희집에 능청시럽게 거짓말 잘하고 염치업시 도져질 잘하는 안즘자는 로파 하나가 있서 저의 마님의 눈치를 보아 비위를 술술 맞춰가며 전후 심부름은 도맛하 호논대 턴힘으로 최씨 부인이 티귀가 있서 아달 하나를 나오니 로파가 신이 열결이나 나서 (로)마님 마님의 정성이 지극하시더니 칠성님이 돌보서 삼신헝츠가 계시게 호섯습니다.」

위의 인용문 가운데서 「턴힘으로」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즉 확률이 아주 낮은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일러주고 있다.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일이 무당이나 만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부인이나 노파는 칠성님의 加護 덕분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한다. 최씨부인이 더욱 더 미신에 깊이 빠지게 된 것도 역시 우연발생적인 사건에 의해서다.

「연석가 맛노라고 하로 썬훈날 업시 잔병치레로 유명한 만득이가 경읽은 이후로는 안질 한번 안 알코 잘 자라니 최씨 마음에 정장님은천신만십어 만득의 먹고 입는 일동일정을 모다 그 지휘호는터로 남에 집 음식도 안 먹이고 시다른 천숫도 안이 입혀 본리 구기가 한바리에 시를착이 업던 터에 얼마쯤가입을 호았는터 그 명목이 썬 만호니」

(밑줄은 필자임의)

그리하여 최씨부인은 만득의 우두점종을 거부하게 된다. 迷信에 침혹하여 합리적인 과학을 외면하게 된 것이다.

「사름마다 울까바 겁이 나고 피히가는 역질을 어서 오기를 눈이 감도록 고터호더니 합씨가 집안이 결단이 나라던지 최씨의 소원이 성취가 되려던지 별안간에 만득의 전신이 부집 달듯호며 정신을 모르고 알는터 보안물 한술 안이 먹고 느러졌스니……상하로소 물론호고 분주히 약을 실시업시 티리는데하다가 합진희만 사람으로

나가면 그약은 간다 보아라 귀신노리만 붙으논디 그렇더령 삼일이 지나더니……역질이라는 병은 다른 병과 달나 징세를 보아가며 약 호첩에 죽을 것이 사는 슈도 있고 중환것이 경히도 걸터이어날 최씨는 약은 비상국만치 넘이고 밤낮돌고 도라단이는 것이 동의 정안슈뿐이니……불상호만득이가 지작업는 어미를 맞나 필경 세상을 버렸더락]

함진해 내외가 죽은 아들을 위해 진배송 곳을 하는데 철저히 미신을 배척하였던 함진해는 「천만뜻밖게 다시 오라니 생각도 안이 하였던 귀신」이 나타나는 광경을 보고 하루 아침에 미신의 옹호자로 변해 버리고 만다. 귀신의 再現은 금방울의 초인적인 神術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작품의 서두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계획적인 관찰에 의한 것이었다. 금방울은 배전 병문 큰길에서 회오리 바람 때문에 함진해의 모자가 날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아 두었던 것이다. 금방울은 바로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不可能事를 가능한 것처럼 바꿀 수(귀신재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李海朝가 취한 구성의 수법은 다소 억지와 무리를 보여 주게 된다. 애초에 최씨부인과 노파가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도 그렇고 다시 이 노파와 금방울이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금방울이 함진해의 집안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논리적인 설득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金東仁이 春園의 작품 「無情」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구성의 허점으로 지적한 「汽車上의 奇緣」<sup>11)</sup>과 같은 억지와 무리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우연적인 구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무엇인가를 구제하기 위해 나타난 우연성의 수법은 대부분의 비평가들로부터 멸시받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찰스디킨스 같은 소설가들은 일부터 우연성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우연성의 수법은 사소한 기회와 놀라운 일로 가득찬작가 자신의 생활을 강조하고 과경하려는데 끝잘 쓰여진다.……우연성의 수법에 반대하는 것은 不可能(improbability)에 대한 거부반응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차라리 不合理한 것(inconsistency)에 대한 혐오의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로트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해결이 될 때 그 작품의 기본구조는 일단 뒤 흔들리고 마는 것이다」<sup>12)</sup>

11) 金東仁：春園研究，東仁全集 8，弘字出版社，1967，p. 502.

12) Marlies K. Danziger: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D.C. Heath and Company, 1968, pp. 22-23.

위에서 지적한 것 말고도 작품 「驅魔劍」은 많은 우연적인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 함지평이 죽은 때와 만득이 죽은 때가 거의 일치되는 것도 우연이며 임지관(도사)이 장안 만호 하고 많은 집에 장과 국이 맞느냐고 금방울의 이웃에다 집을 정하는 것도 우연이며 함진해가 임지관을 찾아 가다가 산속에서 도둑을 만나 돈을 빼앗기는 것도 우연이며 끝으로 함종표가 판사가 되어 음양술객·무복잡류배를 소탕하면서 금방울 일파를 잡아 들이는 것도 우연이다. 특히 작품 「驅魔劍」의 결말 부분은 여타의 소설에서 흔히 취하고 있는 그런 「遭遇의 技法」을 사용해 보이고 있다.

「함종표의 명예가 사회상에 현자<sup>하</sup>야 만장공천으로 평리원관을 하였는데 그 맛 찰 우리나라 정치를 쇠신<sup>하</sup>야 음양술객과 무복잡류배를 일병포박<sup>하</sup>야 차례로 신문하는 중에 하로는 무너 일명을 잡아드려 오거늘 종표의 너심으로 더 계집도 사물은 일반인더 무슨 노릇을 못히서 후세무민<sup>하</sup>는 무너노릇을 하다가 이디경을 당<sup>하</sup>노 우리집에서도 아마 이싸워 년에게 속고 죄가를 핏술것이니 아모씨던지 그년만 붓들고 보면 더덕에쳐죽어 찻지로 우리집 설분도 하고 들지로 세상사름의 후일 경계를 하리라」

그런데 바로 그 잡혀온 여자가 함씨 일가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금방울인 것이다. 李海朝는 좋은 결말을 맺기 위해서 약 10여년이 소요되는 일을 단 몇줄로 처리 하였다. 時間比(각 사건에 배분되는 시간의 양)의 기본 논리까지 파괴해 가면서까지 함진해를 함종표의 손으로 구출하여 낸다는 스토리를 마련한 것은 결국 感傷의 結構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李海朝는 이 소설의 끝부분에 가서 함진해에게 보낸 함일청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속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함일청은 함진해에게 합리주의적 생활 방식과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東洋이 停滯에 빠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당우이리로 하늘을 공경<sup>하</sup>며 귀신의게 제지<sup>하</sup>는 불과 일시에 빈성의 뜻을 단속키 위함<sup>하</sup>이러니 오귀혼 선비들이 오형의 의문을 창설<sup>하</sup>야 길흉화복을 스스로 붙은다 호므로 지양과 상서의 허탄<sup>하</sup>한 말이 대치<sup>하</sup>야 점점 심술수록 요악<sup>하</sup>한 말을 유작<sup>하</sup>할지라 일로<sup>하</sup>조차 텅디 귀신이 유고 썩아사며 죽고 사는 권리를 실상으로 조종<sup>하</sup>야 순히<sup>하</sup>하면 길<sup>하</sup>고 거슬<sup>하</sup>으면 흉<sup>하</sup>출<sup>하</sup>줄로 미혹<sup>하</sup>야 이에 밝음을 바리고 어두움을 구<sup>하</sup>며 사물을 너야<sup>하</sup>노코 귀신을 위<sup>하</sup>야 무너와 판슈가 능히 지양을 사라지게 하고 복을 마조<sup>하</sup>는 줄 너겨 한사름 두사름으로부터 거세가 본밧아 적

게 혼집단 멸망혼란 안이라 크게 나라까지 쇠약케 하느니 이는 곳 억만명 황인종의  
금일 참혹한 형상을 당혼 소이연이니다」

결국 작품 「驅魔劍」은 偶然論的 世界觀의 극복이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  
으면서 실제 이를 形象化 하는 과정에서는 偶然構成의 유혹을 완전히는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